

산과 절의 호흡코드 '재활용'

청양 칠갑산은 안성 칠장산에서 갈라져 내려온 금복정맥 한가운데 자리한다. 계룡산·가야산과 함께 충남의 3산인 칠갑산이 그 한가운데 해발 560미터로 솟아있다. 칠갑산은 명산치고는 낮은 곳에 있지만, 생태적으로는 큰 산에 든다.

칠갑산을 몸으로 느껴보면 서해안고속도로보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공주 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것도 한치터널을 버리고 한치고개를 굽이굽이 돌아야 제 맛이다.

칠갑산 장곡사에서 내려오는 계류는 실낱같다. 계류 주변에는 왕버들, 자귀나무, 느티나무, 산딸나무, 사시나무, 쭉 등이 어우러져 있고, 비탈에는 군데군데 소나무가 보인다.

장곡사가 앉은 자리는 칠갑산의 서사면이다. 395봉과 316봉 사이의 송골에 자리잡고있다. 골짜기가 좁아서 전각들이 모두 비탈의 석단 위에 앉아있다. 장곡사 가람배치는 하대웅전 영역, 상대웅전 영

역발이 있다. 운학루 불사 과정에서 나온 툇밥 등을 밭에 뿌려 놓았다. 썩으면 좋은 거름이 될 터이다. 작은 일이지만, 자연환경을 위한 배려와 관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예전 같았으면 해우소 매질(煤質)로도 요긴하게 쓰였을 툇밥이다.

계단 주변의 화단은 차라리 풀밭에 가깝다. 엉겅퀴, 썩뜨리, 옥잠화, 맨드라미, 개망초, 머위, 금잔화, 고들빼기, 메꽃 등등이 풀밭 속에서 저대로 피고 진다.

풀밭 위로 노랑띠잡자리들이 쉴 틈 없이 날아다닌다. 장곡사 경내에는 네발나비, 여덟발나비, 호랑나비, 긴꼬리제비나비 등등 몇 종류의 나비들이 눈에 띈다. 이 나비들은 반드시 경내에 피어있는 꽃들을 탐해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비행중일인 나비들은 수시로 햇볕으로 나와서 자신의 몸을 데워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칠갑산에서 특산종인 유리창나비와 희귀종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수백년 된 나무들을 함부로 베어내서 언론의 질타를 받는 등 최근 들어 절에서 노거수를 함부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종무원에서 관리대장이라도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을 것이다.

삼성각 주변에는 늙은 소나무들이 굴참나무와 함께 그윽하게 어울려 있다.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아웅다웅 싸우다가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들 점잖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노송은 그 어느 나무보다 산신각에 잘 어울리는 나무이다.

장곡사 찾집은 근대 사찰 경내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국적미상의 찻집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전통적인 아치(雅緻)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찻집 건물이 주위의 전각이나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고, 흔한 통유리 대신 전통 사찰문장호를 두고, 서구식 테이블이 아닌 앉은뱅이 다탁을 놓고, 절에서 나온 폐기와 폐자재 등을 재활용해 도구나 소



장곡사전경

역, 삼성각 영역 등 세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경내에 들어서면 먼저 상대웅전을 만난다.

장곡사를 '대웅전을 둘 가진 절'이라고 하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전각에 내걸린 현판만 같을 뿐, 두 대웅전에 모셔진 부처님은 각기 다르다. 하대웅전은 약사보살을 모신 '약사전'이요, 상대웅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이다.

장곡사는 요즘 운학루를 해체 복원하는 공사로 조금은 붐비다. 운학루에서 조금 비껴선 범종루에는 그 옛날 대중들의 공양밥을 퍼 담던 큰 구유가 남아있다. 일부 자료에는 비자나무로 만들었다지만, 나무결을 보면 엉라않은 느티나무다.

범종각에는 코끼리 가족으로 만들었다는 큰 범고기가 있다. 모과처럼 울퉁불퉁해서 자연미가 돋보이는 범고다. 앞뒤로 여기저기 찢어져서 세월을 느끼게 하는 고물(古物)이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여태껏 모셔온 대중들의 뜻이 고맙다.

장곡사 전각들은 찻집을 빼고는 맷배지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설선당은 익랑을 달아서 파격(破格)이 주는 느낌이 예사롭지 않다. 하대웅전에서 상대웅전으로 가는 계단 왼편으로

판벽돌 깔린 상대웅전 내부 고려 사찰의 전형

자연·전각과 조화 이룬 찻집 생태 건축의 모범

온대 중·남부 식생 보이거나 인공림 넓어 매력 떨어져

인 쌍꼬리부전나비를 비롯하여 일본에서만 보고된 쥐새끼나방, 제주태극나방 등이 최근 새롭게 채집되었다.

칠갑산은 변변한 암봉 하나 없는 전형적인 육산이다. 그러나 상대웅전 뒤로 돌아가면 가슴에 품고 있던 내밀한 암반을 어미의 젖가슴처럼 열어 보인다. 상대웅전은 그 가슴팍을 가리운 전각이다.

상대웅전 내부는 네모난 판벽돌이 깔려있다. 따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불교 도래 이후 고려 때까지 사찰의 전각 내부 바닥은 판벽돌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대웅전이 설법 중심의 건물인 법당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루를 깔게 된 것이다.

상대웅전에서 삼성각으로 내려가는 계단 좌우에 자주달개비를 실어놓았다. 자주달개비는 오래 전에 미국에서 들어온 원예식물이지만, 내한성과 지질 적응력이 강하여 사찰에서도 많이 심는 원예종이다.

계단 옆에 늘씬하게 생긴 느티나무 한 그루가 시원한 그늘을 부쳐남게 공양하고 있다. 수령이 8백년을 넘은 노거수다. 사찰에는 아직도 노거수들이

품을 만들고, 인테리어의 주제를 '불교'에서 찾아낸 것이 무엇보다 고맙고 이쁘게 보인다.

칠갑산 야생화는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 식물인 천마제(15호)와 미나리 아재비과인 산작약제(26호)를 비롯해 털잔대, 흰여로, 참줄바꽃, 은방울꽃, 매발톱꽃, 금낭화, 금새우란, 심조롱, 개미취, 영초 등 다양한 종류가 서식하고 있다.


칠갑산은 온대 중부와 남부가 만나는 지역의 관개로 두 지역의 식생을 두루 보여주고 있다. 칠갑산의 숲을 3등분했을 때 아래쪽에는 떡갈나무, 굴피나무, 백동백나무, 장구밥나무 등이 많이 보이고, 장곡사 위쪽으로는 굴참나무, 상수리, 까치박달, 갈참나무, 층층나무, 느티나무, 고로쇠나무, 팽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해발 5백 미터 이상에서는 굴참나무, 굴피나무, 산철쭉 등이 주종이다.

197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인근 지역의 산림보다 많이 건강해졌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인공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서 식생의 매력은 적은 편이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상사화·거위벌레·지주달개비(위로 부터).



불교TV와 함께 떠나는

中國 황산 구화산 장가계, 원가계 성지순례

지장보살의 화신인 김교각 스님은 과연 누구인가?

표허스님께 듣는다!

문의 및 접수 : 불교TV 사찰순례팀 02-3270-3333 / 02-887-2148

성지순례 일정표

상해 / 황산 / 구화산 / 장가계 / 원가계 6일

* 출발일차: 불기 2548년 9월 6일(월) - 9월 11일(토) 5박 6일 * 상품가격: 1,230,000원 (공정세, 가이드급, 비자비용포함)

| 일정 | 지역 | 교통편 | 시간 | 여행일정 | 식사 |
|------|-----|--------|-------------------------|--|----------------------------|
| 제 1일 | 상해 | KE886 | 11:00 |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K-L 카운터에서 집결 | 석: 현지식 |
| | | MU5238 | 14:00 18:05 19:10 | 상해 (홍고 공항) 도착 상해 (홍고 공항) 출발 황산 도착 호텔 투숙 및 휴식 | |
| 제 2일 | 황산 | 전용버스 | 전 일 | 아침 관광 후 황산등정 (계이불까마루, 사신봉, 용평정화, 배운정, 사지봉 등 관광 후 하산 구화산으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
| | | 전용버스 | 전 일 | 아침 관광 후 육신보전 영가천도 대법회 화생사, 기원사, 백세경(계이불까마루), 천대산(계이불까마루), 교동동 순례 석식 후 호텔 투숙 |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
| 제 3일 | 구화산 | 전용버스 | 전 일 | 아침 관광 후 육신보전 영가천도 대법회 화생사, 기원사, 백세경(계이불까마루), 천대산(계이불까마루), 교동동 순례 석식 후 호텔 투숙 |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
| | | 전용버스 | 전 일 | 아침 관광 후 김문서(불교사찰) 순례 남경으로 이동 남경 출발 / 왕도도(천간산) 황산출발 / 장가계도착, 석식후 호텔 투숙 |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
| 제 4일 | 장가계 | 전용버스 | 전 일 | 아침 관광 후 산정호수인 보봉호 유람 천지산 등정 (계이불까마루) 후 하룡공원, 선녀한화, 사해, 어룡봉 등 관광 후 왕가계로 이동 / 천하제일고, 미륵대, 후회원 등 관광 후 백룡 열라비터로 하산 |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
| | | 전용버스 | 전 일 | 아침 관광 후 원가계 출발 상해 도착 호텔 투숙 |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
| 제 5일 | 상해 | KE894 | 11:40 | 아침 관광 후 상해 출발 | 조: 호텔식 중: 현지식 |
| | | KE894 | 14:15 | 인천 도착 후 해산 - 성불하심시오 - | |

* 지도번호: 요허스님 (단양 방곡사 주지) * 접수서류: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사진장, 계약금 10만원
 * 접수처: 불교TV 사찰순례팀 성운숙차장 023270-3333 / 887-2148 / 011-416-7879
 * 현지에서 구입하신 물품은 절대 환불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사: 여행메이커